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인식 조사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LIS Students about Public Library's Subject Special Services and Subject Special Librarian

노 영 희 (Younghee Noh)*

오 의 경 (Euikyung Oh)**

목 차

- | | |
|-----------|---------------|
| 1. 서론 |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
| 2. 이론적 배경 | 5. 조사 분석결과 |
| 3. 연구질문 | 6. 결론 및 논의 |

초 록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인식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이다. 전국의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지 수준, 필요성 인식 수준, 주제전문사서의 역량과 현재 학생들의 역량,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 등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학생들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수준, 주제전문사서로 일하고자 하는 의사, 주제전문사서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은 학사제도와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통해서 구비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응답자 비율도 높았다.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화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고, 주제전문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주제전문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학생들은 스스로 주제전문성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의 현재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유능한 주제전문 사서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방안 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is a broad examination researchon LIS students' perception about public library's subject special services and subject special librarian. Students majoring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s respondents, it examined the recognition level of subject special services and subject special librarian, cognition level of necessity, competencies of subject special librarians and students and opinions on special status system of subject pspecial librarians. Main factors shown in the results include the the level of students' understanding and necessity of subject special services and subject special librarian, students' willingness to work as a subject special librarian, the willingness to put additional effort into equip themselves with competencies as subject special librarians. There were respondents who have equipped competencies as subject special librarians through courses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and school curriculum but have not done anything further. Respondents responded that there is a need to systematize special status system of subject special librarian and that subject specialty is important in implementing subject special services but that there is a lack of subject special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put more emphasis on developing curriculum that can help overcoming difficulties faced by students majoring in Information Scieene and help them become competent subject special librarians.

키워드: 주제전문서비스, 주제전문사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주제전문사서 역량, 공공도서관
Subject Special Services, Subject Special Librarian, LIS Students, Librarian Competencies,
Public Library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제1저자)

** 상명대학교 인문콘텐츠학부 문헌정보학전공 조교수(ohui@sm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8년 4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8년 4월 16일 게재확정일자: 2018년 5월 21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2): 5-25, 2018. [http://dx.doi.org/10.4275/KSLIS.2018.52.2.005]

1. 서론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의 특화 시범사업을 펼치며 2002년 이후 중단되었던 공공도서관 특화사업을 재개하였다. 1998년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이 재정적 결핍을 보완하고, 전문도서관으로의 발전하여 정보서비스 강화하며, 지역 특성에 따른 정보를 수집·보존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특화사업을 시작하였다. 1998년 6개 도서관을 시작으로 1999년에는 5개 도서관, 2000년에는 2개 도서관을 지정·운영하였으나 후속 사업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지원마저 중단되어 사업을 유지하는 도서관은 소수에 불과한 실정이었다(홍희경 2008). 2017년 재개된 시범사업은 이전과는 다르게 도서관 환경 변화에 따른 특성화·전문화·개인화 등 이용자의 문화 요구에 대응하고,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고, 주제 및 사업계획의 적절성, 도서관의 역량과 의지, 자원 확보의 지속성 및 발전 가능성을 기준으로 2개 도서관을 특화도서관으로, 8개 도서관을 특화 예비도서관으로 지정하였다. 특화도서관으로 지정된 '과주가람도서관'과 '순천시립조례호수도서관'은 리모델링, 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연구활동, 큐레이팅, 특화도서관 브랜드 홍보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공도서관이 반드시 특화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서관의 여건과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전통적인 서비스만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고 기존의 서비스와 특화 주제의 서비스

를 모두 제공할 필요가 있는 도서관도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용자 및 지역의 요구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예산, 인력 그리고 자원이 충분하게 지원된다면 공공 전문도서관으로 변신하는 도서관도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어떤 경우라도 공공도서관이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고 준비해 나간다는 취지에서, 공공도서관들은 비교 우위를 갖는 주제를 발굴하고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미리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특화사업을 이끌어 갈 전문인력의 양성과 배치의 문제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특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은 특화 주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주제 전문사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기존의 사서들 중에서 특화사업 주제에 대한 개인 역량, 경험, 그리고 참여 의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인력을 선발하여 배치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사업의 일관성, 체계성,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 양성과 배치에 대한 제도화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사서양성시스템에서는 주제배경을 가진 사서를 양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 4년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서 대부분의 2급정사서를 배출한다고 볼 때, 주제배경 지식은 각 대학의 학사제도(부전공, 다전공, 연계전공 등)와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등을 통해서 대부분 습득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모두 충분한 수준은 아니다. 예컨대, 학사제도의 활용은 학교마다 그리고 학생 개인의 관심과 학업 일정에 따라 유

동적이며, 교육과정은 일부 대학에서 의화사서와 법률사서 양성을 목적으로 소수의 교과목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뿐이다(오의경 2016). 더욱이 이들 교과목들은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를 목표로 하는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을 전제로 구성된 교과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도서관의 정책이나 환경의 변화는 현장의 사서들뿐만 아니라 장차 사서직을 희망하는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에게도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사서업무와 이용자 서비스 관점에서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과 중요성, 주제전문사서의 양성, 배치, 제도화의 문제들을 다루어 왔다. 예비사서들이 도서관의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혹은 환경에 적합한 역량들을 어떻게 구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제전문서비스나 도서관 특화에 관한 부분에서도 재학생들이 현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데 충분한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이 연구는 현재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이 도서관 현안과 미래 진로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갖고 준비를 해야 함이 당연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재학생들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지와 필요성 인식 수준, 주제전문사서 도입, 주제전문사서 역량, 교육 및 자격 제도화에 대한 태도와 의견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조사결과는 문헌정보학과 재학생들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이해 수준과 준비 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관련 교육과정이나 자격 요건을 마련하는데 현실성 있는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이론적 배경

이 장에서는 연구에 활용되는 개념인 주제전문서비스, 공공도서관 특화사업, 주제전문사서, 특화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 주제전문사서 교육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사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조사하였다.

2.1 주요 개념 정의

2.1.1 주제전문서비스와 도서관 특화

주제전문서비스는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따르면 “주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에서 수행되는 전문서비스”를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가운데 학문분야를 세분화하여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정보서비스”이다(문헌정보학 용어사전 2010). 도서관 특화는 “특정 분야를 전문화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용자 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서관 특화의 종류에는 대상자료에 의한 특화(향토자료, 역사, 의학, 법학 등), 이용자별 특화(어린이, 청소년, 노인 등), 서비스 특화(이용자교육, 레퍼런스 서비스, 문화프로그램 등) 등이 있다.

주제전문서비스와 도서관 특화는 특정 주제 영역에 대한 서비스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전자는 학문 기반의 주제전문성을, 후자는 도서관 자체의 비교우위 주제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도서관 특화는 도서관 특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주로 연구 논문에서는 도서관 특성화로 표기하는 사례가 많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명을 표기함에 있어서 도서관 특화라고 하였다. 최근의 도서관 특화 이슈는 주로 공공도서관

관을 기반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대학도서관에서도 특정 학문 주제에 대하여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상명대학교 천안캠퍼스의 도서관은 애니메이션 특화 도서관이다).

엄격하게 정의하면 주제전문서비스와 도서관 특화는 다른 개념으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도서관에서 특정 주제나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전문적으로 서비스한다'는 의미에서 유사개념으로 간주하였고 설문지에서는 넓은 의미에서 '주제전문서비스'를 사용하였다. 응답자에게도 주제전문서비스의 개념에 공공도서관의 특화사업도 포함됨을 주지시켰다.

2.1.2 주제전문사서와 도서관 특화 전문인력

주제전문사서는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주제분야에서 고도의 지식을 소유하고 관련 주제 영역의 자료를 선정,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아울러 정보서비스와 서지업무를 담당하는 도서관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문헌정보학 용어사전 2010).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2014)에서는 “주제전문사서(subject specialist)는 주제 분야에서 도서관의 자료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정보서비스의 부가적 책임과 자료의 서지적 조직의 책임을 지닌, 주제 분야에 뛰어난 지식을 가진 도서관 직원”으로 정의하였다. 종합하면 특정 주제에 있어서 도서관적인 모든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 특화사업에서는 투입되는 인력을 사서로 표현하지 않았다. 사업의 지원 내용을 보면 전문인력(강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특화사업을 진행하는데 전문 역량을 가진 사람을 대체로 아우르고자 함

을 알 수 있다. 실제 사례에서 특화도서관인 과주가람도서관은 비사서의 음악전문가를 전문인력으로 투입하였다.

주제전문사서와 도서관 특화 전문인력은 전자는 사서를 의미하는 것이고 후자는 주제 전문가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주제전문서비스를 ‘특정 주제에 대한 차별화, 집중화된 서비스’로 정의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리고 응답자가 학생임을 감안하여 ‘주제전문사서’라는 명칭을 설문에서는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모두 사서 자격증을 취득할 것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서가 아닌 전문가를 지칭해야 하는 문항에서의 표현 외에는 주제전문사서로 통일하여 설문문항을 작성하였고, 주기를 통하여 두 가지 표현이 이 연구에서는 유사하게 사용됨을 전달하였다. 이후의 본문에서도 주제전문사서로 사용하고자 한다.

2.1.3 주제전문사서의 교육 사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주제전문사서의 교육 사례로는 의학전문사서 교육의 사례가 있다. 의학전문사서는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주관으로 일정한 기준치를 달성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자격 항목 중 의학사서의 역량과 관련된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주요한 내용은 ‘MeSH 색인’과 ‘의학용어 강좌’이다. 이 교육은 한국의학도서관협회 소속 도서관의 사서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MeSH 색인’의 경우에는 의사와 의학사서가, ‘의학용어 강좌’는 주로 의사가 교육자로 교육을 이끌어 간다. 오의경(2016)의 연구에 의하면 최근의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교육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한국의학도서관협회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3년~2016년)

의학용어 강좌	강좌명	의학사서를 위한 Basic Medical Terminology	기초의학에서 접근하는 의학용어	임상의학에서 접근하는 의학 용어
	강사	의사(의대교수)	의사(의대교수)	의사(의대교수)
	교육기간	2013.10.25.~12.27. 주 1회 8주 총 20시간	2015.1.9.~2.7. 주 1회 8주간 총 16시간	2016.1.7.~2.25. 주 1회 총 8주 16시간
	교육대상 및 교육비	회원: 150,000원 비회원: 200,000원	회원: 150,000원	회원: 150,000원
MeSH 강좌	강좌명	MeSH Indexing 중급과정	MeSH 색인 초·중급 교육	MeSH 색인 전문가 양성 교육
	강사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의사(의대교수) 의학사서
	교육기간	2013.5.9.~7.18. 주 1회 8주 총 16시간 (별도로 Homework)	2014.12.13. 오전 10시~오후 3시 (4시간)	2015.8.19.~9.2. 2주간 ① 기초과정: 24시간 (MeSH 교육) ② 중급과정: 16시간 (MeSH 문제풀이와 실습) ③ 고급과정: 8시간 (MeSH 색인 실전)
	교육대상	① 의학사서 및 보건의과학분야 전공자 ② MeSH Indexing 초급과정을 이수한 자로 MeSH Indexing 실무가 가능한 자	회원	① 의사 ② 간호사(석사학위 이상 혹은 임상경력 2년 이상) ③ 의학사서(석사이상 혹은 의학도서관 경력 2년 이상) ④ 생물학관련전공자(석사학위 이상)
교육비	무료	무료	무료	

출처: 오의경 (2016) p. 442.

2.1.4 선행연구

(1) 사서교육관련 연구

우리나라의 사서교육은 대학원에서 사서교육이 시작되는 해외 사례와 달리 문헌정보학과 학부에서 시작된다. 이러한 학사구조 안에서 주제전문사서를 배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첫째, 주제전문사서 교육은 문헌정보학 교육과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내포하는 연구로 강미혜(2002)는 『주제서지』 교과목을 활용하여 강도 높은 주제전문사서 교육이 가능하며, 법률사서의 사례에서 법학관련 서지의 교육과 현장의 경험 등을 중

요시 여겼다. 남영준과 허운숙(2005)은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분석한 결과 주제서지 관련한 교과목들이 대분류 위주임을 지적하고 세부 주제별로 교과목이 구성되어 교육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안인자 등(2009)은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6개의 교육과정인 ‘정보자원개발’, ‘정보봉사’, ‘도서관마케팅’, ‘이용자교육’, ‘주제연구’, ‘도서관경영 일반’에서 15개의 교과목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대학의 여건에 맞는 특성화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노영희(2005)는 대학은 대학마다 교육목표, 지향점, 정책 등 차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반영하여

특성화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K 대학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에 맞도록 문헌정보학의 교과과정을 '기초·핵심과목 트랙', '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 트랙', '정보학 트랙', '정보조직학 트랙', '정보조사제공학 트랙', '정보조사제공학 트랙', '학교도서관 트랙'으로 구분하였고, 주제별정보원 교과목으로 「인문사회정보원」, 「과학기술정보원」 등을 제시하였고 이 과목들은 '정보조사제공학 트랙'에 속하였다.

셋째,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에서 특정 주제를 선택하고 이에 맞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명자(2001)는 법률주제사서 양성을 위하여 문헌정보학(도서관학) 대학원에서 법률도서관학 전공을 개설하는 것이 전문인력 양성에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윤영대(2003)는 한 두 과목의 주제관련 교육으로 의학전문사서를 양성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의 사서 양성시스템을 고려할 때, 문헌정보학 학부과정에서 가능한 많은 의학 주제 배경의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오의경(2016)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의학주제사서 양성 교과목을 편성하는 것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제고와 학생들의 진로결정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넷째,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학사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장하였다. 강미혜(2002)는 대학의 부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 활용이 주제전문사서 양성방안으로 자주 거론되고 있다고 하였고, 정동열(2002)은 대학의 부전공제도, 복수전공제도를 활용하여 문헌정보학과 졸업자를 초급주제전문사서로 양성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다섯째, 주제전문사서의 업무를 이해하고 지식을 확장하기 위하여 현장 실습 및 인턴십을 권장하였다. 강미혜(2002)는 「주제서지」 교과목에서 서지에 대한 학습 후 현장 방문·견학 등으로 주제전문사서 역량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남영준과 허운숙(2005)는 주제사서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습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위의 주요 선행연구의 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해서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주제서비스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고 학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실습 및 인턴십과 같은 현장 경험을 중요시해야 함을 알 수 있다.

(2) 사서재교육관련 연구

사서 재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고, 그러한 연구들 중에서 주제전문사서의 재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사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할 기초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사서 재교육을 통하여 주제전문사서를 양성할 수 있음을 뒷받침할 만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직 사서의 재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들이 있다. 심원식(2009)은 학부의 교육프로그램과 주제전문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갖출 수는 있겠지만, 주제전담사서를 위한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사서교육기관의 확대와 전담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오의경(2016)의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현재의 국립중앙도서관 교육은 그 내용과 대상이 도서관의 모든 업무와 모든 관중의 사서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주제전문사서를 교육하기에

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관계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은 교육내용이 단조롭고 교육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문제로 보였다.

둘째, 주제사서교육의 내용에 관하여 심원식(2009)은 주제지식 외에 정보원을 이해하고 정보 문제에 대한 적용 능력을 배양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하였고, 박수희와 정동열(2012)은 주제 이해, 이용자 이해, 장서개발, 학술연구 이해, 정보서비스, 이용자교육, 정보기술, 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술, 서비스 계획 및 리더십 등의 교육영역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는 주제사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 의미가 있다.

셋째, 교육의 방법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하는데, 심원식(2009)연구에서는 현직 사서를 위해서 단기, 장기프로그램으로 계획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박수희와 정동열(2012)은 팀 학습 방식을 통해서 폭넓은 시야와 현장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넷째, 심원식(2009)은 사서 재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에 현직 사서들의 참여를 제안하였는데, 이것은 설문 결과와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설문에서도 사서와 관장은 주제전문서비스 역량을 구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현장에서의 경험 축적을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현장의 경험을 가진 사서가 주제사서 재교육 과정에 교수자로 혹은 교육과정 개발자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며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현직 사서들의 재교육은 필요하며, 특히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은 부족하고 교육내용의 구성, 교

육자 방법의 다양성 등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3. 연구질문

본 연구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자격요건과 자격증 취득 의사, 그리고 주제전문사서로의 취업 의사,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자 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제시된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 RQ 1: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이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RQ 2: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이 주제전문서비스를 수행할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 RQ 3: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한 사서의 역량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 RQ 4: 학생들은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할 의도가 있는가?

4. 연구설계 및 방법론

이 연구는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로, 이 장은 전국의 문헌정보학학생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역 배

분하여 표집한 방법과 데이터의 수집 과정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설문지의 작성은 세 부분으로 분리하여 구성하였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 배경, 두 번째는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문항들, 세 번째는 주제전문사서의 요건, 자격, 제도화 등에 관한 문항들이다. 각 문항의 내용과 문항 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4.1 표집 방법 및 데이터 수집절차

본 연구에서는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의 인식 및 수요를 조사 위하여, 문헌정보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을 고려하여 14개 대학의 문헌정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각 대학에 반송용 봉투와 함께 설문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온라인 설문지의 경우, KSDC DB(<http://ksdcdb.kr>)에서 설문지를 제작하여 실시하였다.

설문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31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오프라인 설문지는 4년제 대학 14개교를 대상으로 500부를 배포하였고 451부(90%)가 회수되었다. 더불어 온라인으로 128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어 총 579건이 회수되었다(〈표 2〉 참조).

4.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설문지의 문항은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개인적 배경,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 관련 문항, 주제전문사서 자격, 양성 방법 및 자격요건 관련 문항의 3개 영역과 각 영역별 세부 조사내용의 21개 항목으로 구분하여 설문을 시행하였다. 각 영역별 세부 조사내용은 〈표 3〉과 같다.

5. 조사 분석결과

5.1 응답자 개인적 배경

설문에 응답한 학생의 개인적 배경을 분석한 결과, 총 579명이 설문에 응답하였으며, 그 중 성별은 남자 176명(30.40%), 여자 403명(69.60%)으로 여자 응답률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다. 학년별로 살펴보면 3학년이 239명(41.2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4학년 185명(31.95%), 2학년 116명(20.04%), 1학년 39명(6.74%) 순으로 나타나 3-4학년이 70% 이상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한 지역은 서울특별시가 183명(31.6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청

〈표 2〉 학생 설문 회수 현황

조사 영역	오프라인														온라인
	A대	B대	C대	D대	E대	F대	G대	H대	I대	J대	K대	L대	M대	O대	
N	28	37	34	33	27	34	29	33	34	35	31	30	33	33	128
%	4.84	6.39	5.87	5.70	4.66	5.87	5.01	5.70	5.87	6.04	5.35	5.18	5.70	5.70	22.11
계	579														

〈표 3〉 설문내용 및 문항 구성

영역	문항	수
개인적 배경	성별	3
	학년	
	대학이 위치한 지역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 관련 문항	주제전문서비스 인지 정도	11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 담당 의사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는 이유	
	주제전문사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는 정도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여부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없는 이유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여부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주제전문사서 자격, 양성, 역량 관련 문항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성 여부	7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향후 사서직에 진출하였을 때)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추가적 활동 수행 의사	
	(향후 사서직에 진출하였을 때,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가 확립된 경우) 주제전문사서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수행 의사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현재 본인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 수준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 필요 여부	
총 문항 수		21

〈표 4〉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구분		N	%
성별	남	176	30.40
	여	403	69.60
	계	579	100.00
학년	1학년	39	6.74
	2학년	116	20.04
	3학년	239	41.28
	4학년	185	31.95
	계	579	100.00
재학 중인 대학이 위치한 지역	서울특별시	183	31.61
	부산광역시	34	5.87
	대구광역시	17	2.94
	인천광역시	30	5.18
	대전광역시	2	0.35
	광주광역시	36	6.22
	경기도	67	11.57
	충청북도	104	17.96
	충청남도	36	6.22
	전라북도	49	8.46
	경상북도	20	3.45
	경상남도	1	0.17
	계	579	100.00

북도 104명(17.96%), 경기도 67명(11.57%), 전라북도 49명(8.46%), 광주광역시와 충청남도 각각 36명(6.22%), 부산광역시 34명(5.87%), 인천광역시 30명(5.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2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관한 조사

학생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은 총 11문항이며, 세부 항목으로는 주제전문서비스 인지 정도, 주제전문사서 업무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 담당의사 여부 및 담당할 의사가 없다면 없는 이유, 주제전문사서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노력,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향후 주제전문서비스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질문이다.

5.2.1 주제전문서비스 인지 정도

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알고 있다가 64.94%, 모른다가 13.64%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에서는 평균 3.64점으로 나타났다.

5.2.2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알고 있다 52.16%, 모른다 17.10%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측정에서는 평균은 3.42점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5.2.3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 담당 의사

향후 도서관에 취업하여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의사가 있다가 40.07%, 의사가 없다가 23.66%로 나타났다(〈표 6〉 참조).

〈표 5〉 주제전문사서의 업무 내용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모른다	18	3.11	3.42	0.951
모른다	81	13.99		
보통이다	178	30.74		
알고 있다	246	42.49		
잘 알고 있다	56	9.67		
계	579	100.00		

〈표 6〉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 담당 의사

항목	N	%	M	Std
전혀 의사가 없다	27	4.66	3.18	0.971
의사가 없다	110	19.00		
보통이다	210	36.27		
의사가 있다	194	33.51		
매우 의사가 높다	38	6.56		
계	579	100.00		

5.2.4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는 이유

향후 도서관에 취업하여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주제배경 지식 구비 등)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 4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크기 때문이 29.20%, 주제전문서비스의 내용과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 20.44%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5.2.5 주제전문사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향후 도서관에 취업하여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관심 있는 주제 관련 교양교과목을 수강하였다가 2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는 있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가 19.73%,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목표로 한 전공교과목(예: 주제별정보원, 정보서비스론, 인문과학정보원, 자연과학정보원, 의학정보원, 법학정보원 등)을 수강하였다, 관심 있는 주제를 개인적으로 학습하여 주제배경을 확장하였다가 각각 17.94%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7〉 도서관 취업 후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없는 이유

항목	N	%
주제전문서비스의 내용과 업무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28	20.44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62	45.26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크기 때문이다	40	29.20
기타	7	5.11
계	137	100.00

결측값: 442

〈표 8〉 주제전문사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기울인 노력 (복수응답)

항목	N	%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목표로 한 전공교과목을 수강하였다	120	17.94
다전공(복수전공)을 이수하였다	91	13.60
관심 있는 주제 관련 교양교과목을 수강하였다	172	25.71
관심 있는 주제를 개인적으로 학습하여 주제배경을 확장하였다	120	17.94
주제전문도서관 현장실습, 인턴십 과정을 수행하였다	23	3.44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는 있지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132	19.73
기타	11	1.64
계	669	100.00

5.2.6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는 정도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움이 된다가 57.68%,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12.26%로 나타났으며, 평균은 3.57 점이다(〈표 9〉 참조).

5.2.7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현재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주제전문사서 양성에 적합하게 설계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거의 없다가 33.8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련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있지만 매우 한정된 일부 주제에 관한 것으로 모든 주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가 25.35%, 주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전공(복수전공) 등 타 전공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1.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5.2.8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여부

공공도서관에서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제공해야 한다 77.55%,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22.45%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9〉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는 정도

항목	N	%	M	Std
전혀 그렇지 않다	9	1.55	3.57	0.907
그렇지 않다	62	10.71		
보통이다	174	30.05		
그렇다	256	44.21		
매우 그렇다	78	13.47		
계	579	100.00		

〈표 10〉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이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기여하지 못하는 이유

항목	N	%
주제전문사서 역량 구비에 관련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거의 없다	24	33.80
관련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있지만 매우 한정된 일부 주제에 관한 것으로 모든 특화업무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18	25.35
주제 지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다전공(복수전공) 등 타 전공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15	21.13
문헌정보학의 교육과정은 모든 관중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교육이므로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 역량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지 않다	14	19.72
계	71	100.00

결측값: 508

〈표 11〉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필요성 여부

항목	N	%
예	449	77.55
아니오	130	22.45
계	579	100.00

5.2.9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없는 이유

공공도서관에서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은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가 40.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주제별 특화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8.16%,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주제별 특화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17.39%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공공도서관은 특정 주제에 대한 서비스보다는 전체적인 서비스가 더 필요하

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공도서관보다는 대학이나 전문도서관이 적합하다,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표 12〉 참조).

5.2.10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여부

공공도서관에 주제전문서비스를 전담할 전문사서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 결과, 배치되어야 한다가 66.32%,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가 33.68%로 나타나 과반수 이상이 주제별 특화서비스를 전담할 전문사서가 필요하고 반드시 배치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표 13〉 참조).

〈표 12〉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 제공이 필요없는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이용자의 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79	38.16
현재의 문헌정보학 교육으로는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사서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6	17.39
정책, 장서, 시설, 공간 등 주제전문서비스를 위한 여건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84	40.58
기타	8	3.86
계	207	

〈표 13〉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 필요성 여부

항목	N	%
예	384	66.32
아니오	195	33.68
계	579	100.00

5.2.11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공공도서관에 주제전문서비스를 전담할 전문사서가 배치되지 않아도 된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현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가 4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주제별 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38.79%,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11.0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4〉 참조).

5.3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자격, 교육, 자격제도화 관련 조사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자격제도화에 관한 문항은 총 7문항이다. 세부 항목으로는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요건의 필요 여부, 주제전문사서의

역량과 현재 본인의 역량,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 필요 여부 등이다.

5.3.1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의 필요성 여부

정사서 2급 자격증 이외에 추가적인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필요하다 77.38%, 필요하지 않다 22.63%로 과반수 이상이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추가적인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5.3.2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정사서 2급 자격증 이외에 추가적인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

〈표 14〉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사서 배치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이용자의 주제별 특화서비스(주제전문서비스) 요구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09	38.79
현재 사서인력이 담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15	5.34
주제전문사서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를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31	11.03
현재 도서관의 여건 상 주제전문사서를 배치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116	41.28
기타	10	3.56
계	281	100.00

〈표 15〉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 및 자격요건 필요 여부

항목	N	%
예	448	77.38
아니오	131	22.63
계	579	100.00

협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한다가 4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33.54%, 현재의 구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73%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주제전문이기는 하지만 사서가 본업임으로 자격제도나 자격요건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정사서 2급 자격에 개인적인 공부가 수반된다면 충분하다는 의견, 별도의 사서의 자격제도 보다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자격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표 16〉 참조).

5.3.3 (향후 사서직에 진출하였을 때)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추가적 활동 수행 의사

사서로 취업한 후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을 갖기 위하여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 어느

정도의 수행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서비스 업무 담당이 평균 3.93으로 가장 높은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제관련 전문교육 3.89,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3.69, 주제분야 학위 취득 3.38 순으로 나타났다(〈표 17〉 참조).

5.3.4 주제전문사서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수행 의사 (주제전문사서 자격제도가 확립된 경우)

주제전문사서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학 중에 혹은 취업 후에 다음과 같은 활동이 필요할 경우, 어느 정도의 수행 의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현재의 교육과정에 특정 주제에 대한 지식배경과 정보원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교과목을 편성하여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한다가 3.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표 16〉 주제전문사서의 자격제도나 자격요건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복수응답)

항목	N	%
정사서 2급 자격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55	33.54
현재의 구직 조건이 주제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34	20.73
주제전문성은 취업 후 현장에서 경험과 재교육으로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70	42.68
기타	5	3.05
계	164	100.00

〈표 17〉 (향후 사서직에 진출하였을 때)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비하기 위한 추가적 활동 수행 의사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M	Std
	N	%	N	%	N	%	N	%	N	%		
주제분야 학위 취득	18	3.11	76	13.13	207	35.75	226	39.03	52	8.98	3.38	0.930
주제관련 전문교육	14	2.42	13	2.25	105	18.14	336	58.03	111	19.17	3.89	0.819
현장에서 일정기간 주제서비스 업무 담당	13	2.25	14	2.42	93	16.06	339	58.55	120	20.73	3.93	0.814
프로그램 진행 관련 기술 교육	15	2.59	26	4.49	152	26.25	314	54.23	72	12.44	3.69	0.841

3.63점, 재학 중 관련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3.61점, 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3.2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5.3.5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해당 주제분야의 지식이 4.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원 이해 4.20점, 도서관 업무 기술 4.19점, 정보활용기술과 데이터 큐

레이팅 능력이 각각 4.11점, 커뮤니케이션 기술 4.0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9> 참조).

5.3.6 현재 본인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 수준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3.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언어 능력 3.31점, 도서관 업무 기술 3.23점, 정보활용기술 3.18점 등의 순으로

<표 18> 주제전문사서자격증을 취득을 위해 필요한 활동들의 수행 의사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M	Std
	N	%	N	%	N	%	N	%	N	%		
다전공(복수전공)을 필수 이수하도록 한다	26	4.49	75	12.95	240	41.45	182	31.43	56	9.67	3.29	0.964
특정주제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도록 한다	41	7.08	163	28.15	257	44.39	95	16.41	23	3.97	2.82	0.926
재학 중 관련기관의 현장 실습과 인턴십을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8	1.38	45	7.77	190	32.82	259	44.73	77	13.30	3.61	0.863
취업 후, 재교육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12	2.07	35	6.05	192	33.16	254	43.87	86	14.85	3.63	0.881

<표 19> 주제전문사서에게 필요한 역량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M	Std
	N	%	N	%	N	%	N	%	N	%		
해당 주제분야 지식	1	0.17	3	0.52	34	5.87	230	39.72	311	53.71	4.46	0.647
커뮤니케이션 기술	2	0.35	1	0.17	103	17.79	322	55.61	151	26.08	4.07	0.688
언어 능력	1	0.17	7	1.21	144	24.87	308	53.20	119	20.55	3.93	0.717
정보활용기술	1	0.17	2	0.35	88	15.20	328	56.65	160	27.63	4.11	0.668
정보원 이해	1	0.17	5	0.86	72	12.44	298	51.47	203	35.06	4.20	0.696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4	0.69	40	6.91	271	46.81	218	37.65	46	7.95	3.45	0.766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12	2.07	65	11.23	281	48.53	183	31.61	38	6.56	3.29	0.830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2	0.35	9	1.55	96	16.58	287	49.57	185	31.95	4.11	0.753

나타났다. 주제전문사서에 필요한 역량으로 해당 주제분야의 지식, 정보원의 이해 등의 역량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현재 학생들은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언어능력이 높게 나타났다(〈표 20〉 참조).

이다(〈표 21〉 참조).

6. 결론 및 논의

5.3.7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 필요 여부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는 의견이 74.44%,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2.25%로 나타났으며, 5점 척도의 측정에서는 평균 3.90점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연구는 도서관계에서 꾸준히 논의되어온 주제영역이다. 주로 대학도서관과 전문도서관을 중심으로 서비스의 개발과 제공, 사서의 교육과 자격제도 등에 대하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특화사업이 시범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공공도서관에서의 주제전문서비스도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와는 전문

〈표 20〉 현재 본인이 갖추었다고 생각하는 주제전문사서로서의 역량 수준

항목	전혀 의사가 없다		의사가 없다		보통이다		의사가 있다		매우 의사가 높다		M	Std
	N	%	N	%	N	%	N	%	N	%		
	도서관 업무 기술	18	3.11	82	14.16	258	44.56	191	32.99	30		
해당 주제분야 지식	24	4.15	178	30.74	260	44.91	99	17.10	18	3.11	2.84	0.863
커뮤니케이션 기술	10	1.73	77	13.30	240	41.45	206	35.58	46	7.95	3.35	0.870
언어 능력	13	2.25	70	12.09	261	45.08	195	33.68	40	6.91	3.31	0.854
정보활용기술	14	2.42	91	15.72	276	47.67	174	30.05	24	4.15	3.18	0.831
정보원 이해	14	2.42	90	15.54	295	50.95	158	27.29	22	3.80	3.15	0.811
콘텐츠 기획·개발·운영 능력	30	5.18	161	27.81	267	46.11	101	17.44	20	3.45	2.86	0.883
콘텐츠 홍보·마케팅 능력	41	7.08	171	29.53	241	41.62	106	18.31	20	3.45	2.82	0.931
데이터 큐레이팅 능력	36	6.22	161	27.81	274	47.32	90	15.54	18	3.11	2.82	0.880

〈표 21〉 주제전문서비스 및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 필요 여부

항목	N	%	M	Std
전혀 필요하지 않다	2	0.35	3.90	0.713
필요하지 않다	11	1.90		
보통이다	135	23.32		
필요하다	328	56.65		
매우 필요하다	103	17.79		
계	579	100.00		

성의 수준이나 서비스 유형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특정 주제에 대한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서비스라는 점에서 일맥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환경의 변화들은 현직의 사서, 현재의 도서관 현장의 사서들, 학자들 사이에 서만 야기되어야 하는 화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사서직으로 취업을 하고자 하는 문헌정보학과의 학생들도 환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정보서비스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주제전문사서로의 준비 상태와 자격제도에 관한 의견 등을 조사한다면 앞으로 취업 준비생의 현황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자격제도를 추진할 수 있는 배경적인 정보들을 얻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과 목적을 바탕으로 수행된 문헌정보학과 재학생 대상의 조사연구이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하여 설문을 배포하여 최종 579명의 학생이 응답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은 도서관의 주요 서비스로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제전문사서의 역할에 대하여 각각 64.93%, 52.16%가 알고 있다고 답하였다. 응답자의 70% 이상이 3,4학년으로 구성되고 있고 정보서비스론, 주제별서지 등의 교과목이 2-3학년에 설강되는 일반적인 경향을 고려해 본다면, 응답자의 응답비율은 높은 편은 아니다. 둘째, 향후 사서직으로 도서관에 취업한 후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0.07%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의사가 없다고 한 23.66%의 응

답자 중 65%가 주제전문서비스를 담당할 만큼 준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유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학사제도와 교과과정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보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제전문사서가 되기를 희망하지만, 이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할 지 알지 못하겠다는 응답 비율도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학생들은 현재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이 향후 주제전문서비스 수행 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주제전문서비스에 특화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거의 없고, 주제전문서비스에 특화된 문헌정보학 전공교과목이 있지만 매우 한정된 일부 주제에 관한 것으로 모든 주제서비스를 대비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넷째, 70%이상의 응답자가 공공도서관이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지만,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것은 이용자의 요구가 적을 것이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섯째, 응답자들은 주제전문사서에 필요한 역량으로 해당 주제분야의 지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다(5점 척도에서 4.46점).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역량도 주제분야의 지식이라고 답하였다(5점 척도에서 3.11점). 여섯째,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책서, 법적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 74.44%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미래의 있을 업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조사 결과가 재학생들의 주제전문서비스와 주제전문사서에 대

한 이해 수준과 준비 수준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것을 가정하였고, 향후 관련 교육과정이나 자격 요건을 마련함에 있어서 현실적인 데이터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을 예측하였다. 과연 예측된 바처럼 향후에 유용하게 사용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문헌정보학과 학생들의 주제전문서비스나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인식 비율이 예상보다 높지는 않았다. 대학의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서는 '정보서비스론'을 비롯하여 '주제서지', '주제정보원' 그리고 '의학용어학', 'MeSH'와 같은 주제기반의 교과목들이 대체로 2-3학년에 개설되고 있고, 응답자의 약 70%가 3-4학년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인지 수준은 오히려 낮은 편이라고 볼 수도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등을 권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주전공 교과목의 졸업이수 학점이 낮아진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수강한 교과목이 줄어들면서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인지와 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응답한 학생들은 주제전문사서의 역량을 구축함에 있어서 학사제도와 교과과정에 많이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학사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전공 교과목 수강의 기회를 줄어들게 하였으나, 학사제도가 주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는 이중적 상황을 만들어 냈다. 그러므로 학사제도의 활용과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사이의 적절한 균형 감각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압축적으로 소수의 교과목을 수강하더라도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하여 필요한 역량을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독

려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다전공, 부전공, 연계전공을 선택할 경우, 현장의 수요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전공을 선택하도록 독려하는 것도 방법적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안정적 수요가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현재 공공도서관의 상황을 분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가 이어진다. 공공도서관과 이용자의 현황을 분석하고 필요한 주제 전문성을 도출하고, 이러한 사항들이 문헌정보학의 학사구조에 결합시키는 후속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은 주제전문사서의 역량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제전문성이라고 하였고, 스스로에게 가장 부족한 역량 역시 주제전문성이라고 하였다. 결국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주제전문서비스의 핵심은 주제전문성이라는 것인데, 이 점에서 고민해야 할 요소는 공공도서관이 요구하는 전문성의 수준이다. 대학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에서 요구되는 것과 유사한 수준인지, 공공도서관에 필요한 전문성의 수준과 특성이 어떠한 것인지 등이 조사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공공도서관의 전문성 수준에 대하여 정의를 내리지 못하였고, 응답자 역시 주제에 집중하는 특성을 전문성이라고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였다. 이런 맥락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주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서가 가져야 하는 전문성의 영역과 수준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연 주제 자체에 대한 전문성만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수준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내야 할 것이며, 전문성에 대한 정의를 마케팅, 섭외, 프로그램 기획과 같은 또다른 영역의 전문성까지 확대해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연구가 수

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전문사서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계의 스테디한 이슈가 되어왔으나, 서비스의 내용, 사서의 역량, 자격, 제도에 대해서 여전히 명확한 해결책이 제안되거나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못한 채로 있다. 그만큼 많은 변수가 개

입되어 있고, 주제에 대한 서비스 자체가 갖는 다양성이 존재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공공도서관 기반의 논의가 더해져, 세부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영역은 더욱 많아지고 있다. 후속 연구가 현장 적용성을 갖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강미혜. 2002. 주제전문사서의 양성을 위한 주제서지과목 과제 방안 연구: 법률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49-68.
- [2] 남영준, 허운순. 2005.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6(3): 39-64.
- [3] 노영희. 2005. 문헌정보학 교육과정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1): 59-80.
- [4] 박수희, 정동열. 2012. 대학도서관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형 개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311-339.
- [5] 심원식. 2009.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사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0(1): 541-560.
- [6] 안인자 외. 2009. 주제전문사서를 위한 능력중심 교육과정 개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3(1): 333-361.
- [7] 오의경. 2016. 주제전문사서와 주제전문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연구: '의학용어와 MeSH', '보건의학정보원' 수강생 대상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0(1): 437-456.
- [8] 윤영대. 2003. 의학사서직의 교육에 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4(1): 131-146.
- [9] 정동열. 2002. 지식기반시대 대학도서관의 주제전문화 역할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6(3): 5-23.
- [10]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1] 홍명자. 2001. 법률전문사서의 양성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2(3): 249-274.
- [12] 홍희경. 2008. 『도서관 특성화의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6개 지역 공공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 [13] Michael Levine-Clark and Toni, M. C. 2014.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IL: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mia-hye. 2002. "A Study on the Assignment of the Subject Bibliography Course for the Education of the Subject Specialist Librari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49-68.
- [2] Nam, Young-Joon and Heo, Oun-Soon. 2005. "A Study on the Curriculum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for Subject Specialis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6(3): 39-64.
- [3] Noh, Younghee. 2005. "A Study on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Specialized Programs in Curriculum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9(1): 59-80.
- [4] Park, Soo-Hee and Jeong, Dong-Youl. 2012. "A Study on Developing a Model of a Liaison Training Program for Academic Librarian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311-339.
- [5] Shim, Wonsik. 2009. "Curriculum Development of Training Librarians for Subject Liaison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0(1): 541-560.
- [6] Ahn, In-Ja et al. 2009. "Competency Based Curriculum Development of Subject Specialist Libraria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3(1): 333-361.
- [7] Oh, Eui-Kyung. 2016. "A Study on Improving Perception of Subject-Special Librarian and Subject-Special Services: Focusing on Survey Targeting Students Who Take 'Medical Terms and MeSH' and 'Health & Medical Information Sour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0(1): 437-456.
- [8] Yoon, Yung-Dai. 2003. "A Study of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4(1): 131-146.
- [9] Jeong, Dong-Youl. 2002. "A Study on the Role Model of Subject Specialization in Academ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6(3): 5-23.
- [10]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11] Hong, myung-ja. 2001. "A Study on the Education of Specialized Law Librari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2(3): 249-274.
- [12] Hong, hee-kyeo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the Developmental Plans of the Specialization of the Public Libraries*. M.A.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